

모든 것을 잃은 현장에서 천년을 준비한 다니엘

다니엘1:8, 마태복음24:14-15

정윤돈 목사님

“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 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불신앙하다가 죄를 짓고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다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개인과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치유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초대 왕 느부갓네살이 BC.605년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생애와 다니엘을 통해 계시된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것을 상실한 현장에서 수천 년 후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한 3서밋을 갖춘 모델적인 램넛드들이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과거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맡기고 뜻을 정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미래를 준비했다. 이 중 다니엘은 어느 정도나면,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

1. 그렇다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면서 다니엘이 잃어버린 것들과 당한 어려움들은 무엇일까?

(1)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형제, 가족을 잃어버렸다. 나라를 잃어버렸다. 언어와 글도 잃어버렸으며, 이름까지도 잃어버렸다.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 왕국의 환관장이 ‘벨시악’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이라는 뜻을 가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네고라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사람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창씨개명의 아픔을 알고 있다. 아주 마음 아픈 일이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가 이름과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를 찾고 회개하며 도전해야 한다.

(2) 당연히 자유도 잃어버렸다.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로 바벨론의 교육, 언어, 학문을 배워야 했다. 또한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다. 학자들은 다니엘이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자녀로 보고 있다. 그 근거는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족과 귀족 중에서 소년 몇 사람을 데려와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많은 사람을 데려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다.

(3) 이로 인해 고향과 학교, 이스라엘의 학문과 문화와 민족적인 자부심도 잃어버렸다. 당연히 자신의 미래의 꿈과 희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성전의 많은 기물도 빼앗겼고 모독을 당하였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들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전의 기물도 다 빼앗겼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처럼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4) 예배와 신앙의 자유까지도 잃어버렸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였고, 다니엘은 몰래 하루에 세 번 기도 하다가 사자 굴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모델적인 서밋타임의 모습이다. 자기 가정의 집을 미션홈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것이 영적서밋의 자세이다.

(5) 이뿐만 아니라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었던 예레미야와 같은 영적인 스승도 없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두루마리와 같은 말씀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을 수집하고 정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것을 상실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3서밋의 응답과 오직, 유일성, 채창조의 응답을 받았으며 앞으로 회복될 성전과 후대와 나라를 위해 백년, 천년의 응답을 미리 준비하였다.

2.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을 준비하였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오직의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1) 다니엘은 무엇을 준비했을까?

① 잃어버리고 흩어진 말씀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묵상하였다. 그 증거가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다. ‘매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니엘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다가 ‘70년’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BC.586년), 성전재건이 완성(BC.516년 경)되기까지 70년이 걸렸다. 성경에서 숫자 ‘70’은 주로 회복을 뜻한다. 복음을 깨달으면 다투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성전 회복의 말씀성취를 본 후에 죽은 것이다. 여러분도 말씀성취를 체험하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말씀성취를 이룰 수밖에 없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 드린다. 그러려면 강단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한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깊이 붙잡았던 것처럼 해야 한다. 그래야지 증인될 수 있고 지교회가 지속될 수 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상실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직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② 또 다시 끌려온 유대백성들을 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하였다. 그 방법은 정시기도와 말씀과 미션홈과 회당이었다. 포로로 끌려와서는 성전이 없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만든 것이 회당제도이다. 그 제도가 계속 이어져서 2천 년 동안 전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졌지만 이 회당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이 된 것이다. 그 시작을 다니엘이 한 것이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 7가지 훈련을 준비해야 한다. 한 개인이 지교회가 되고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RUTC, OMC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까지 대비하며 준비해야 한다. 그 한 사람, 그 소수가 필요한 것이다.

③ 우상문화와 강대국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미리 보여주었다. 먼저 믿음을 준비한 것이다.

(2)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① 뜻을 정했다. 먹고 마시는 것에 타협하지 않았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행위적인 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것이다.

② 정시기도를 하였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매일 실천하였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9장 3절에서 19절은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이다. 그 중에 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만 보겠다. 회개기도를 먼저 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쑥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불신앙, 불순종, 죄의 배후조종자인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어느 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거듭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는 새 역사가 여러분과 후대들에게 있을 줄을 믿는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 순간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다.

④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서밋타임, 서밋자세, 서밋그릇을 준비하여 100년의 작품을 남겼던 것이다. 램넛트들은 말씀 안에서 결단해야 한다. 복음, 예배만 집중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안에서 해야 한다.

(3) 결국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과 지혜와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축복까지 주셨다. 다니엘서 1장 17절이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즉, 이 네 램넛트들은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의 축복을 받은 램넛트들이었다.

②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도 살아났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났다. 그들은 하늘보좌의 역사와 천사보호를 경험하였다. 이것이 위드, 임마누엘, 윈니스의 축복이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2절이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 드린다.

③ 나라와 왕이 바뀌었지만 고위관직에 있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고,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으로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어린 나이부터 늙은 나이까지 고위관직과 총리를 역임하였다.

④ 다니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았다.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은 수백 년을 넘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있다. 다니엘서 2장에는 금신상, 7장에는 네 짐승,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 9장에는 70이레, 11장에는 북방 왕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알렉산대왕, 그 후에 일어날 4명의 왕과 로마까지의 역사가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을 통해 예언되고 있다. 이 모든 환상과 예언들의 의미는 앞으로 시대시대마다 많은 강대국들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겠지만 결국 최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탄의 나라들과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다.

⑤ 237,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응답을 받았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위관직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이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성전운동, 회당운동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⑥ 다니엘은 계속해서 일어날 후대들의 영적인 모델과 발판이 되었다. 에스겔, 에스더, 에스라와 같은 인물들은 모두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영적으로 준비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부터 바꾸면 된다. 불신앙부터 버리면 된다. ‘내가 237나라 다 살릴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 ‘나 혼자 참사랑교회의 헌당을 다 할 것이다.’ 생각만 하면 된다.

⑦ 결국은 이스라엘의 나라와 성전과 말씀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에 포로귀환 칙령이 내려진 것을 목격하였다. BC.538년, 다니엘의 나이 약 82세에서 90세였다. ‘내가 불신앙 안하기를 참 잘했구나.’ 생

각했을 것이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

⑧ 다니엘은 그리스도께서 말세지말에 다시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미리 보는 응답을 받았다. 다니엘 2장 32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겠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열마는 쇠요 열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우상을 친 돌이 반석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천하에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였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넷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서뜨리고 쪼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열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열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열마는 쇠요 열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열마는 든든하고 열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2장 44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 나라를 만드는 그 사역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의 주역이 되시길 축원드린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백년, 천년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았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다. 그 방법이 뜻을 정하고, 믿고, 강단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후대들에게 계속 응답을 주실 것이다.

결론으로,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들이 붙잡을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천년의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였다.
2. Vision,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에서 다니엘과 같은 제자를 찾아 양육하여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다니엘처럼 복음과 성전회복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24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천년을 미리 준비 할 RUTC, 237, RU, OMC의 환상을 미리 보여 주실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속지 말고 천년의 응답을 위해 전도하고, 준비하고, 공부하며 도전하기를 바란다. 예수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참사랑교회 RUTC와 헌당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과 미션과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이 지역, 민족, 세계, 가문복음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의 주역이 되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교단과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